

When do the Crews Come Back Home?

소말리아 해적과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한국인 선원 4명이 1년 7개월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생존은 확인됐지만 언제 가족들 곁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다. 정부가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왜 그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돌려보내지 않고 있을까?

글 임동근 기자·사진 연합뉴스 DB

쇠퇴하는 소말리아 해적과 본거지

국제해사국(IMB)은 전 세계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의 선박 공격이 지난 9월 말까지 233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2건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10월 27일 기준으로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선박 공격도 71건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의 233건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분기부터 11월 18일까지 신고된 소말리아 해적의 선박 납치 공격 시도는 2건에 불과했다.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이 줄어들면서 해적 근거지로 알려졌던 소말리아 해안 도시 갈카요(Galkayo)와 호보(Hoby)도 유흥가가 즐비했던 해적 전성기 시절의 모습이 사라지고 지금은 황폐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선박과 선원 납치가 어려워지면서



해적들이 선박과 무기, 연료 등을 마련하려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며 파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술집은 문을 닫고 50센트였던 차 한 잔 값은 현재 5센트까지 하락했다. 또 하룻밤 1천 달러를 벌었다는 성매매 여성들도 모습을 감췄다고 한다. 호화롭게 생활하던 해적들은 파산해 판자촌에 숨어 지내고, 일부 해적들은 생계를 위해 피랍 선원들로부터 물고기 잡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중국 환구시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올해 납치한 인질 교환 대가로 받아낸 몸값도 지난해의 4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지난 9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소말리아 해적들이 받아낸 몸값은 약 2천500만~3천만 달러(약 280억~330억 원)로 추산됐다. 지난해 몸값 약 1억7천만 달러(약 1천900억 원)를 받아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소말리아의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은 해적을 양산하는 원인이 됐다. 해적 대부분은 연안에 물고기가 줄어들자 총을 들게 된 어부들이다. 최근 소말리아 해적은 각국 해군의 단속과 선박들의 자체 무장으로 쇠퇴하고 있다.

국제 공조와 선박 자체 방어가 한류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이 줄어든 이유는 각국 해군의 단속과 선박들의 자체 무장으로 선박을 공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소말리아 연안에서 해적 소탕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온 EU,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군사 공조로 납치 건수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또 물류 운송 선박들이 무장 경호원 고용, 가시 철조망 설치, 물대포 사용 등으로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춘 것도 피해를 줄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EU 해군에 따르면 납치 선박 수는 2009년 46척, 2010년 47척이었지만, 2011년에는 25척으로 감소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3척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해 해적의 선박 공격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한다.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이 줄어든 반면 최근 서부 아프리카 기니만 수역의 해적 활동은 증가해 나이지리아와 베냉, 토고 앞바다는 위험 수역으로 분류돼 있는 상태이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최근 “해적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환경 문제”라며 “현재 소말리아 청년들이 해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지 지역사회 지도자, 정치인, 종교 지도자 등과 협력해 해적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국 법 집행기관과 금융정보 당국은 해적이 받은 몸값의 돈 세탁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프리카의 해적은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이 원인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해적에 의존하는 소말리아에서 군사력에 의한 해적 소탕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미니' 호 피랍 과정



제미니 호 선원들은 언제쯤 돌아올까

국제해사국에 따르면 현재 소말리아에는 선박 9척이 납치돼 있으며 선원 154명이 인질로 붙잡혀 있다. 이 중에는 지난해 4월 피랍된 싱가포르 선적 '제미니(MT GEMINI)' 호의 한국인 선원 4명도 포함돼 있다. '제미니' 호 피랍은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최장기 납치 사건으로 기존 최장 기록인 삼호주얼리호의 217일의 3배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프리카 케냐 몸바사 항으로 이동하던 제미니 호는 지난해 4월 30일 케냐 인근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 제미니 호를 소유한 싱가포르 국적 선사 '글로리십'은 해적과 협상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30일 돈과 선박·선원 전체를 맞교환하기로 했다. 그렇게 한국인 선원들은 돌아오기가 쉬웠다. 그러나 돈을 받은 해적들은 새벽 시간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한국 선원들을 다시 납치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이들 선원 4명의 신변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목적인 만큼 해적들이 한국인 선원의 신변을 위협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선사와 해적간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석방 교섭은 답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싱가포르 선사가 제시한 석방금에 비해 해적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몇 배 더 크다 보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회의와 국제사회, 국제기구, 소말리아 임시정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석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성과는 없었다. '해적과 협상하지 않는다', '선사가 주도적인 협상을 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깰 수 없어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태의 장기화는 지난해 1월 청해부대가 해적을 소탕한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과 협상을 중재한 김종규 씨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적들은 제미니 호 납치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생포된 해적의 가족에게 인질을 넘겼고 이들과 해적의 맞교환을 원했다고 한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자 해적들은 맞교환을 포기하고 사망한 해적 8명과 한국에 붙잡혀 있는 해적 5명에 대한 거액의 몸값을 추가로 요구했다. 해적과의 협상 주체는 싱가포르 선사지만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는 협상금을 더 받아내려는 꼼수라는 판단이다.

그동안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던 피랍 선원 가족들은 지난 10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심과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지만 아직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길어지는 피랍 기간과 성과 없는 노력에 가족들의 가슴은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Y

지난해 4월 피랍된 싱가포르 선적 '제미니(MT GEMINI)' 호의 한국인 선원 4명이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해적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깰 수 없어 전면에서 나서지 못하고 있다. 피랍 선원 가족들은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